

도치하타다니 마을 터

도치하타다니는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오래된 광산 노동자들의 공동체 중 하나가 있었던 곳입니다. 16 세기 중반에 형성된 도치하타다니 마을은 16 세기 후반부터 17 세기 초까지 이와미 은광의 번성과 함께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. 적어도 에도 시대(1603~1867) 중기까지 평탄한 계단식 지대 위에 여러 민가가 지어지며 광산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. 도치하타다니와 관련된 에도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 여러 사찰이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 사찰을 참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그 집이나 사찰은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대지를 보강하기 위해 세운 돌담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언덕의 경사면에서는 여러 개의 갱도 구멍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도치하타다니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던 지역일 뿐만 아니라, 이와미 은광의 국제적인 공동체 중 하나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. 마을과 관련된 기록에는 동아시아계 기술자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지명이나 전승도 남아 있는데, 이들은 고도의 광석 가공 기술과 지식을 일본에 전해준 기술 고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들이 전해준 기술 중 하나가 1533 년 이와미 은광에 소개된 은 제련법인 회취법(灰吹法)입니다. 이와미 은광에서 순도가 높은 은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그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16 세기 중반 이후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회취법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때가 이와미 은광 역사의 터닝포인트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